

어린이를 전북 발전 주역으로!

어린이 전용 복합체험문화공간 전북도에 탄생 민선6기부터 사업 착수 복권기금 등 때내 건립 주변 시설과 연계 가족단위 휴식·여가 기능도

어린이 전용 복합체험문화공간이 전라북도에서 탄생했다. 21일 개관한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전북도가 보내 어린이들을 전북발전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주역으로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또한 지난 1990년 전북 유일의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어린이회관이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과 어른들의 추억 속에 존재하다 안전상의 문제와 수동적인 관람위주의 전시 구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민선 6기 도백으로 취임한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 복권기금과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활용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해 건립된 창의체험관은 주변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통문화체험전수관 등과 정책적으로 연계할 경우 가족 단위 체험객들의 도심 속 휴식 여가공간으로써 어린이들에게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놀이 혁신 복합체험문화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근 광주·전남권에는 이같은 어린이 전용 복합체험문화공간이 없어 전라북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함께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로 도약하려는 전라북도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창의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14년 8월 창의체험관 건립용역계

획을 수립해, 이듬해인 2015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2015년 10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이후 2016년 4월, 전라북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 같은 해 5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2017년 6월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됐다.

이와 함께 2017년 3월, 창의체험관 내부에 들어설 전시시설물은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타 시·도 어린이체험시설 사례조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최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18년 5월 전시시설물 설치공사에 들어갔다.

송하진 도지사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체험관을 찾는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유도시설 설치, 어린이단체 방문시 안전한 하차를 위한 '드롭존', 안전매트 설치 등 시설을 보강하여 2019년 6월 최종 완공하게 됐다.

도 창의체험관은 녹색건축과 에너지 효율을 위해 도시공원 속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린 건축물 배치와 태양광 및 고효율 조명기기 등 사용함으로써 2019년 7월에는 녹색건축 그린 4등급과 에너지 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을 취득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누구나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 기능 중심의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체험 공간 조성에 노력했다.

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1층은 최근 각광 받고 있는 VR/AR 등 첨단 콘텐츠 체험제공을 위해 4차산업 체험관이 꾸며져 있을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별문화센터, 영유아 발달 체험을 위한 영유아 오감놀이터, 다양한 예술문화공연이 펼쳐지는 242석 규모의 공연장, 그리고, 수유실, 도시락통, 카페 등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다.

창의체험관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 생활과학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지닌 전북대 산학협력단,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원리를 재미있게 터득할 수 있는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층에는 상상놀이, 역할놀이, 신체놀이, 과학놀이, 감각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놀이·체험이 가능하도록 4개 테마, 19개 체험시설로 구성된 상상 체험관으로 조성돼 아이들이 2시간 여에 걸친 역할놀이를 통해 체험하고 배우며 꿈과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새롭게 변모된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구 어린이회관의 시설 노후화와 컨텐츠 부족, 체험시설 미흡 등으로 대전 어린이회관, 서울 상상나라 등 도의 지역으로 유출되었던 도내 가족 단위 체험객과 타 지역 관광객들이 끌어들이므로써 지역축제, 행사 및 공연 등은 물론 주변 시설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7대 종단 지도자들과 환담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해 종교 지도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도철 교무(원불교), 김영근 성균관장(유교), 김성복 목사(개신교), 문 대통령, 원행 스님(불교), 이홍정 목사(개신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전북도, 태풍 피해 벼 매입 추진... 잠정등의 규격 설정

전북도와 농식품부는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의 규격 A·B·C를 신설하고,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10. 10~16.)하여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의 규격 A, B, C 3개를 설정했다. 잠정등 외 A등급은 제현율 60%이상, 피해립 25%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60%미만, 피해립 25%초과~35%이하, C등급은 40%이상~50%미만, 피해립 35%초과~50%이하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60%이상으로

잠정등의 A등급에 해당되나, 피해립은 30%로 잠정등의 B에 해당하는 경우 잠정등의 B로 판정(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잠정등의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급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등의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급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의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의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알벼 포함)한다.(단,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매입한다. 종전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하여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예고없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자

전북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가올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가입 강조기간 주거취약계층 등 중점가입 대상자 및 전년도 보험 가입자의 재가입을 위해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보험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시·군을 순회하며 풍수해보험 교육과 홍보를 병행

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대상이며,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34~92%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5%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NH농협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를 통한 개별적인 가입이 가

능하고, 시군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주민은 보험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계약 방식도 가능한데, 이 경우 주민은 가입동의를 등용 이상·통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정부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이 전파되면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면적 50㎡ 기준 4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예기치 못한 풍수해 재산 피해를로부터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내일 국회의원선거구 확정 관련 전북지역 의견 청취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북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내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북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7개 도 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을 대상으로 지역 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의견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